

삼성, 송도 바이오단지에 2조 투자!

삼성은 인천 송도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인천 송도가 삼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삼성바이오제약의 입주를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SAMSUNG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4

Taste of Spring 인천의 봄맞

Focus 바이오 허브, 인천

Enjoy Incheon 뷰파인더 인천

Global Incheon 러시아

Green City 도심형 자전거

발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관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you
취 재	편집위원 이윤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3
사 진	김보섭 · 홍승훈 · 김성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 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와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인천대교기념관

쪽 뻗어 오른 인천대교기념관 천탑에 불이 걸려 있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지만, 그 끝에 불이 실려 있다. 바이 오산업단지가 송도에 조성된다는 불소식도 바람 같이 전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계절도… 인천도!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Taste of Spring** 인천의 봄맛

12 **Focus** 바이오 허브, 인천

18 **Enjoy Incheon** 뷰파인더 인천

22 **Global Incheon** 러시아

24 **Green City** 도심형 자전거

28 **2014 인천AG** 홍콩

32 **사람과 사람** 이영옥 · 한영우

36 **책 읽는 인천** 리딩이 성공의 비밀이다

38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커피

- 40 **Special** 인천 다방
- 42 **당신을 지원합니다** 무상급식
- 44 **Civic News** 시정뉴스
- 48 **Council News** 의정뉴스
- 52 **외국인 칼럼** 리처드 워밍튼
- 53 **건강백세** 방사선, 그것이 궁금하다
- 54 **Infobox** 생활정보
- 56 **Spot the Difference** 틀린그림 찾기
- 57 **Reader's Photo** 김치찰칵
- 58 **모닝커피 한잔** 송옥숙

06 Taste of Spring | 인천의 봄맛
두근두근, 입안에 봄이 밀려오다
 입안에 두근두근 봄이 밀려온다. 피릿피릿 싱그러운 아채와 향기로운 허브 그리고 제철 만년 해산물... 풀 향기 바다 향기 한껏 나는 요리를 입안 가득 담고, 이 봄을 음미한다.

18 Focus | 바이오 허브, 인천
삼성, 인천과 ‘미래’를 맞잡다
 국내 1위의 기업, 세계 글로벌기업 삼성이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B(생명공학)산업의 동지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선택했다. 삼성역사 70년만에 처음으로 인천과 손을 잡은 것이다.

24 Green City | 도심형 자전거
‘미추누리’ 씩씩 잘 달립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우리시가 지난 3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도심형 접이식 자전거 ‘미추누리’를 두고 한 말이다. 미추누리는 작은 자전거지만 바퀴가 큰 자전거에 못지않은 힘과 속력을 자랑한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구도심의 학교 살려야, 지역이 삽니다

저는 20여 년 전,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가 송도를 비롯한 연구 쪽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학교가 없으면 주민들이 떠나고, 주민이 떠난 지역에는 활기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연료를 없애고 난 후 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착잡합니다.

_ 현정 경기도 시흥시

50대, 저도 꿈을 찾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55세에 고교에 입학한 김순자씨의 이야기를 접하고, 50대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훗날 노인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 삶의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되찾게 해 준 <굿모닝인천> 고마워요~

_ 강현숙 연구구 연수3동

자전거도로 빨리 정비해주세요

자전거가 거의 운행하지 않는 데도 자전거도로가 도로 한 면을 점령해버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에는 병목현상까지 일어납니다. 특히 남동공단 사거리 우회전 하는 길, 농수산물 삼거리 우회전하는 길 등은 정체가 극심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싼 건설비를 들여 만든 도로를 잘 정비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송영길 시장님께서 무분별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_ 박대식 연구구 옥련동

마음으로 가까워진 인천

저는 인천에 살지 않지만 인천으로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굿모닝인천>을 보았지요. 책을 읽으면서 '인천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인가'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인천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낯선 마음이 컸는데,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반가워~ 인천! 우리 잘해 보자고!

_ 이주영 경기도 부천시

경제수도 인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천하면 7,80년대 회색빛 공장지대가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 공장들이 심 없이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인천은 지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단지가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도로 거듭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힘내세요.

_ 김나영 서울시 성북구

이벤트 가득한 축제가 열리길

봄이면, 인천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것은 좋지만 해마다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덩달아 지역경제도 활기를 찾겠지요.

_ 한선희 동구 화수2동

인천에서 살면 어떨까요?

인천이 정말 많이 발전한 듯합니다. 예전에는 인천하면 공장지대, 오래된 도시, 바다와 포구 등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제자유구역, 공항 등으로 나날이 발전하더니, 이제 대기업에 국제학교에, 서울 버금가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네요. 서울은 교통이며 거리며 너무 복잡하거든요.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 없이, 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자연을 동시에 누리면서 인천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_ 김중현 서울시 강남구

인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

여행을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국내외로 여행을 합니다. 그 때마다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하여 <굿모닝인천> 지난 호에 나온 인천의 한옥스테이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기사는 좋았는데 펜션이 모두 강화도에 모여 있어 좀 아쉬웠습니다. 인천 시내에도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연계해 차이나타운이나 동인천의 옛 가옥에서 숙박하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바다 등을 둘러보면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될 듯해요.

_ 장명숙 남구 주안8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인천이 대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저같이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천이 더 좋은 도시가 될 텐데요.

최근 삼성이 B산업의 동지로 송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추진해 셀트리온, 만도 헬라일렉트로닉스 등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기업 공장입지가 가능한 산업단지를 추가하는 등 대기업 유치 여건을 확보키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인천의 일본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인가요? 일본 지진에 대해 시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우리시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 고베시 그리고 파르너십 도시인 요코하마시 시장님과 일본 대사관 앞으로 위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일본의 요청이 있을 시 구조대를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물적 지원은 일본 측에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일본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bulloger 안녕하세요. 시장님. 앞으로 동인천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되죠? 갈수록 죽어가는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개발방식을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배상근(당시 만 38세, 남)
발생일자 2006년 7월 20일(목)
발생장소 남구 주안3동
신체특징 정신질환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두근두근 입안에 봄이 밀려오다

봄이 무르익었다. 무채색 일색이던 세상이 화사한 봄벌에 물들고 바람결 따라 실랑실랑 춤춘다.
입안에도 두근두근 봄이 밀려온다. 파릇파릇 싱그러운 야채와 향기로운 허브 그리고 제철 만난 해산물...
풀 향기 바다 향기 한껏 나는 요리를 입안 가득 담고, 이 봄을 음미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봄결처럼, 보드레한 네 속살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송도유원지 앞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까지 이르는 길에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진다. 인천 뿐 아니라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꽃게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 온 이들도 많다.

송도 꽃게거리에는 꽃게탕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십여 곳이 몰려 있다. 이 거리는 이십여 년 전, 송도유원지 앞 로터리 주변에 포장마차를 차리고 꽃게를 팔던 집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조성됐다. 지금 꽃게전문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 대부분이 그때 포장마차를 하며 꽃게를 팔던 곳이다. 바뀌었다면 예전에는 송도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가 주였다면 지금은 멀리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 등 먼 바다에서 잡은 꽃게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전에 푸르게 넘실거렸던 바다가 매워져 육지가 되고 그 위에 도시가 세워진 때문이다.

꽃게는 4월에 첫선을 보여 10월 말까지 잡히는 데 그 가운데 산란기인 4월에서 6월, 알을 낳기 전에 잡은 암게가 가장 실하고 맛이 좋다. 저장기술이 발달해 요즘은 어느 때라도 꽃게를 맛볼 수 있지만 제철의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꽃게는 찜으로 탕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도 맛이 깊고 풍부하다. 하지만 조개와 다시마 등으로 육수를 내고 속이 꽉 찬 꽃게에 마늘, 대파를 넣고 팔팔 끓인 꽃게탕을 따라올 것은 없다. 그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을 한 그릇 비우면 가슴속까지 뜨끈한 기운이 밀려온다.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게의 보드레한 속살을 쭉 빼내 먹는 재미도 그만이다.

서해의 풍미를 가득 담은 꽃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와 중앙정부도 나서고 있다. 시는 양식, 가공, 유통 전 분야에 걸쳐 꽃게산업을 키우고 정부와 함께 연평도 해역을 꽃게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Tip 꽃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의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가 잘된다. 또 게에 들어있는 글리신과 타우린 성분이 감칠맛을 내 어떤 음식하고도 잘 어울린다. 게의 배 아랫부분을 보면 삼각형의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늘고 뾰족하면 수게고 둥글고 널찍하면 암게다.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달려 있는 것이 신선하다.





알싸하게 톡톡, 몸이 논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하다. 계절의 변화를 맞을 때 마음과 달리 몸은 뒤처지기 마련이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는 허브만 한 것이 없다. 향긋하면서도 알싸하게 톡톡 터지는 향이 입맛을 돋우고 피로를 쫓아 만물이 생동하듯 몸을 일깨운다.

을왕리 왕산해수욕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허브젠(747-1269)’은 허브전문 레스토랑이다. 바다와 허브의 만남이라,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셰프가 정성껏 차린 식탁은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그야말로 음식마다 꽃이 피었다. 고슬한 쌀밥에 아삭아삭한 허브와 채소, 형형색색의 꽃들이 수북이 담긴 허브비빔밥은 보기만 해도 봄 향기가 훅 끼친다. 샐러드, 수제피자 등 각종 요리에도 꽃과 허브가 만발하다.

허브는 부드럽고 달착지근하면서도 알싸하고 때론 감미로운 향으로 입안 가득 봄을 불어넣는다. 오묘한 향이 전하는 미각의 변화는 마치 마법과 같다. 이처럼 미각, 시각, 후각을 예민하게 일깨우려면 무엇보다 식재료가 신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허브젠은 최상급 호주산 청정우만을 쓰며 이를 공급받는 즉시 진공상태로 냉동보관해 신선도를 유지한다. 또 채소는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일 새것을 깨끗이 씻어 식탁 위에 올리는 정성을 들인다. “저희 가게를 찾는 분들께 먹는 즐거움은 물론 보는 즐거움, 건강까지 드리고 싶어요. 오감을 활짝 열고 삶의 여유가 주는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허브젠의 대표 이정미씨가 봄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말한다.

서해 바닷가 맛집이라면 으레 어지럽게 늘어선 조개구이집이 먼저 떠오른다. 그 가운데 청량한 바닷바람 따라 향긋한 허브향이 술술 풍기는 허브젠은 단연 특별한 존재다.

허브



허브전문 레스토랑 '허브젠'

Tip 봄 내 물물 나는 허브는 음식의 풍미를 높일 뿐 아니라, 각종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다. 허브는 차, 샐러드, 필라프 등 각종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데 특히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레몬밤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춘곤증을 쫓을 수 있다.



유기농 채식뷔페 '산·들·바람'

Tip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몸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한다. 이럴 때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나물로 밥상을 차리면 몸에 생기가 돈다. 봄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방풍나물, 피로를 풀고 입맛을 돋우는 원추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곰취가 특히 좋다.



유기농 채식

햇살, 바람이 키운 자연의 맛

오가닉 푸드는 깨끗하고 입에 달다. 여기에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과 정성스런 손맛이 스며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나른한 봄날,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착한 유기농 채식뷔페 ‘산·들·바람(502-0633)’을 찾았다.

이곳의 음식에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의 식탁에 정직하게 올리겠다’는 iCOOP생협연대 신복수 회장의 굳은 신념이 담겨 있다. 그 뜻에 따라 식재료도 생협을 거친 최상급 유기농 채소와 산나물만을 고집해 자연의 품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자극적인 화학조미료를 쓰는 법도 없다. 유기농 설탕, 버섯, 다시마 등 천연조미료를 사용해 맛이 은은하게 달고 부드럽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메뉴는 정갈하고 야무진 채식음식으로 채워져 있다. 파릇파릇한 나물과 야채가 담뿍 담긴 유기농 샐러드는 봐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물기가 묻어나는 여린 잎의 맛과 감촉은 더 큰 즐거움을 준다. 새송이버섯 구이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을 지닌 버섯과 은은한 양념이 흐트러트리지 않게 어우러져 맛 이상의 깊이가 느껴진다. 식당 분위기도 자연을 닮았다. 정겨운 나무테이블과 의자가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창밖에는 나무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녹빛 자연을 훑날린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당이 아닌 일상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쉼터와 다름 아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건, 이곳에서 나는 수익금이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맑은샘어린이도서관의 운영비로 쓰여 진다. 이 도서관은 신복수 회장이 사재를 들여 지역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중한 공간이다.

세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산·들·바람. 제 가진 것을 모두 내어 주고 또 내어 주는 자연과, 그 마음이 다르지 않다.



밴댕이

혀끝에 사르르 불이 녹아내리다

밴댕이 계절이 왔다. 밴댕이는 바닷물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 파르르 죽어버릴 정도로 성질이 급하지만, 그 맛은 일품이다. 살이 부드러워 입에서 사르르 녹고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달고 고소한 맛이 난다.

밴댕이가 주로 나는 곳은 강화군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로, 후포항선착장 근처에 횃집 삼십여 곳이 사이좋게 몰려 있다. 바닷가가 아닌 도심에서도 맛있는 밴댕이를 맛볼 수 있다.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옆 문예길 음식거리에 밴댕이 전문식당이 몰려 있고, 연안부두 해양센터에 밴댕이요리집 사십여 곳이 모여 있다. 연안부두에 있는 금산식당(884-1324)은 줄 서지 않는 날은 운이 좋다할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35년 전 이열순 할머니가 문을 연 이래 3대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할머니는 손맛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며느리는 딸과 사위에게 전해 주었다. 세대는 변했지만 할머니로부터 이어 온 정성과 매운 손맛은 그대로다. 할머니의 둘째 손녀 박재순(33)씨는 말한다. “할머니 때부터 찾아오시는 단골손님이 많으세요.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전해 내려 온 맛과 정성, 넉넉한 인심을 고스란히 상 위에 차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정성 때문일까, 이집 밴댕이는 맛이 깊고 풍부하며 살아있다. 밴댕이에 초고추장을 살짝 바르고 껍질에 싸 먹으면 씹쌀한 향과 밴댕이의 고소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진다. 밴댕이와 오징어에 야채를 송송 썰어 맛깔스럽게 버무려 낸 회무침도 입에서 살살 녹는다. 밥에 쓱쓱 비벼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술 한잔까지 곁들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바다음식은 바닷사람이 잘 아는 법이야. 우리는 자연산이 아니면 못 먹어. 여기 음식은 육질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자연의 맛이 진하게 풍겨. 이집 맛을 따라 올 데가 없어.” 예전에 연안부두에서 뱃일을 하셨다는 할아버지 세 분은 지금은 서울, 경기도에 살지만 ‘인천의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밴댕이거리를 찾는다. 뱃사람이 인정한 맛, 그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밴댕이요리 전문 '금산식당'

TIP 밴댕이는 산란기를 맞아 기름기가 오른 4월 중순부터 7월 초가 가장 맛있다. 물 좋은 밴댕이는 회로 내놓았을 때 등에 은빛이 흐르고 반들반들 윤기가 나며 살색이 하얗다. 물이 가면 비린내가 많이 난다. 회, 구이, 젓갈 등으로 만들어 먹는다.



주꾸미요리 전문 '할머니 주꾸미집'

TIP 주꾸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가 가장 맛있다. 낙지보다 작지만 연하고 쫄쫄하게 씹는 맛이 일품이다. 또 지방이 1%밖에 안 되고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좋다. 특히 먹물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간에 좋은 작용을 해 고단한 몸을 달래고 남성의 원기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입안에 착 감기는 '봄 맛'

주꾸미

문어도 낙지도 아닌 것이 짜리몽땅 못생겼지만 맛 하나는 기가 막히다. 부드럽게 데친 주꾸미를 입안에 쏙 넣고 씹으면 속살이 터지며 쌀알 같은 알들이 탱글탱글 쏟아진다. ‘아... 이것이 바로 바다의 맛이로구나’. 짭조름한 향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혀끝을 무아지경으로 몰아넣는다.

동구 만석동 주꾸미골목은 4월이면 주꾸미 볶는 냄새로 진동한다. 이 골목의 원조는 ‘할머니주꾸미집’(773-2419)이다. 그 역사는 40여 년 전 만석고가 밀포장마차에서 시작했다. 우순임(77) 할머니는 단골손님으로부터 서울 무교동의 낙지볶음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꾸미볶음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결과는 할머니 말마따나 ‘대박’이었다. 이후 할머니집을 시작으로 주꾸미집이 하나둘 생겨났고 지금의 골목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철이면 만석부두나 소래포구에서 갓 잡은 주꾸미들이 배에서 내려 이 골목으로 행차하고, 가을이면 양념으로 쓸 고추가 길가에 빨간 융단처럼 펼쳐진다.

새빨간 양념에 파릇한 미나리를 조물조물 무쳐 지글지글 볶아 낸 주꾸미는 겨우내 무더진 입맛을 확 깨운다. 여기에 바짝 졸인 볶음국물에 뜨끈한 쌀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어느 새 밥 한 공기 후딱이다. 할머니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 정량을 지켜 음식을 만드는 법도 없다. 지금도 눈대중으로 손대중으로 양념을 친다. 그런데도 맛이 기가 막히다. 그 비법을 물으니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 숨어있다. “다른 건 없어. 손님에게 내는 음식은 내 식구가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지.”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 딸이 가업을 잇고 있지만, 일흔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아직도 주방일에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손수 손질하고 정성을 담뿍 담아 양념을 만든다. 또 수저를 매일 삶고 같은 그릇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닦으라 이르며 주방을 정갈하게 관리한다. 그 아름다운 고집으로, 40년 맛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인천과 ‘미래’를 맞잡다

총 2조원 이상 규모, ‘바이오시밀러사업’ 투자계획

지난 겨울은 경제도 날씨도 지독히 추웠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한파에 인천경제도 한껏 움츠렸다. 찬란한 봄꽃을 피우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봄이 올과 동시에 인천경제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1위의 기업, 세계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BI(생명공학)산업의 동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선택했다. 삼성역사 70년만에 처음으로 인천과 손을 잡은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삼성, IFEZ에 간판을 걸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인천에 차세대 유망업종으로 떠오른 바이오산업의 투자를 확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등으로 흔들렸던 위상이 삼성의 투자결정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확고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맺은 입주협약 내용은 ‘해외첨단바이오기업 바이오 파크 조성’으로, 위치는 송도 5공구 내 27만4천㎡, 총 투자비는 2조원 이상이다.

삼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제약 산업 진출을 위해 전략적 해외투자자로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서비스업체인 미국의 키타일즈(Quintiles)사와 자본금 3천억원 규모 합작사를 설립했다. 합작사에는 삼성전자 40%, 삼성에버랜드 40%, 삼성물산 10%, 키타일즈사가 10%의 지분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며 바이오제약 산업 가운데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CMO)을 우선 추진한다.

삼성은 4월 중 입주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뒤, 6월쯤 바이오의약품 생산 플랜트 건설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의약품 생산은 2013년 상반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먹을거리 ‘생명공학’

삼성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산업 생산기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삼성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 이진희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모든 제품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고, 2007년 이후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에 힘써왔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5월 총 23조3천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제약과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 의료기기 등 5개 신수종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그동안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해 왔다. 이런 환경에서 삼성은 미래를 같이 할 파트너로 인천을 택했다.

삼성그룹이 선택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는 30분 이내 거리에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최대항만인 인천항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면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제약 제품은 대부분이 해외수출용이고, 냉장·냉동 항공 물류가 필요하기에 송도의 입지 조건은 탁월하다. 바이오산업 집적도가 우수한 점도 삼성이 송도국제도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셀트리온,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 지식경제부 생물산업 기술 실용화센터 등 바이오분야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국내외 고급두뇌의 집적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도 큰 메리트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해외 제약업체들의 입·출국과 외국인 임직원들의 주거가 편리하다. 송도지구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진척도가 가장 앞서있는 지역이다. 고품격 주거단지, 호텔, 공원, 외국인학교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도 삼성이 인천을 선택한 이유다.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진입 기대

삼성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산업' 진출로 송도는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송도엔 다양한 바이오 관련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 유타인하 DDS연구소, GE 헬스케어 R&D센터, 아이센스, 이길너 암·당뇨연구원, 이원생명과학 연구원 등이 신약 개발 및 생명공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로는 셀트리온,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 등이 송도를 근거지로 입주해있거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또 바이오 신약 등의 임상 설립이 가능한 연세대 국제병원, 송도 국제병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한 클러스터와 삼성의 자본력, 기술력이 맞물린다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2012년 인천대에 생명공학대학, 2015년 생명과학연구소와 생명과학대학원을 각각 설립한다. 삼성의 송도 진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활은 물론 국내 대기업이 외국과의 합작형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파급효과가 각 분야에 미치고 있다. 당장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다. 고용창출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

대된다. 삼성이 2013년부터 송도에 운영하는 바이오 연구·개발시설의 채용규모는 300명이지만, 플랜트 증설과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고급두뇌 집단의 송도진입은 교육, 문화, 여가 분야에서도 '도시의 격'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인데 송도에 삼성의 간판이 걸린 것 자체가 침체된 송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데 삼성의 바이오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Behind Story 삼성, 송도 유치까지

삼성의 송도 진출은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을 깜빡 놀라게 했다. '인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은 기쁨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송영길 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었다"며 조심스럽고도 비밀스럽게 진행했던 7개월간의 유치과정을 소개했다. 우리시의 삼성유치전은 1%의 가능성을 완벽한 100%로 만든 성과품이다. 시가 삼성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삼성은 세종시에 바이오시설을 세우려다 중단한 상태였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국내 대기업 유치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기업만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국내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때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실무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미 삼성은 경기도 기흥에 5만평을 확보해 건축설계까지 마친 상태였고, 기흥이 아니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지정받은

대구, 청주 오송 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송도유치 가능성은 1%에 불과했다. 대구는 삼성그룹의 모태도시라는 인연과 이병철 창업자의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기에 우리시는 한참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경제청 실무담당자들은 20번이나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을 방문,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7개월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장 신경쓴 것은 보안이었다. 협상 중간에 언론보도가 될 경우 타 지역의 반발과 외압으로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비의 프로젝트 진행을 아는 사람이 시장, 경제청장 등 몇몇에 불과할 정도로 보안은 철저했다. 시가 삼성을 설득한 부분은 공항, 항만 등 지역의 배후 교통과 경제자유구역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등을 끈질기게 설명해 삼성의 마음을 돌렸고, 송도가 최종후보지가 되는 극적 드라마를 연출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든 기적을 일군 셈이다.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인프라 현황

● 바이오 제조시설

업 체	면 적(㎡)	설립시기	생산제품
셀트리온	19만706	2005년	관절염 치료제
아이센스	6천559	2011년(예정)	혈액분석기, 면역센서(심근경색 진단기)
케이디코퍼레이션	9138	2011년(예정)	의약품분리기
베르나바이오텍	3만3천578	2010년	B형 간염백신, 권박셀(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

● 바이오연구소

연구소명	위치 및 면적(㎡)	설립시기(사업기간)	주요내용
제이씨비공동생물과학연구소	이길너 암·당뇨연구원	2008년	생명공학분양 기초연구
유타-인하DDS연구소	송도테크노파크B동	2009년	약물전달기술(DDS)개발 및 임상적용연구
CJ연구소	2만2천546	2010~2012	바이오제약, 사료, 식품통합연구소
한일과학산업	5천32	2010~2012	실험기기 및 바이오장비개발
이원생명과학연구소	5천32	2010~2012	검사진단기법개발연구소

● 바이오관련 학과

학 교	학 과	입학정원(명)
가천의과학대학	약학과	25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40, 50
인천대	생명과학부	80
연세대	약학과	25

롯데, 대한항공, CJ... ‘글로벌 기업’ 송도로 몰린다

삼성 바이오시밀러 사업, 롯데그룹 쇼핑몰, 대한항공 요트경기장 건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송도에 1조원 규모의 쇼핑몰을 건립한다. 송도 롯데쇼핑타운은 연면적 약 22만㎡의 대규모 복합상업시설로 68층 오피스빌딩인 동북아무역센터(NEATT)·송도 컨벤시아(컨벤션센터)·쉐라톤 호텔과 연결된다. 쇼핑타운이 완공되면 서울 코엑스 단지과 유사한 복합상업단지가 송도 안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쇼핑타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천100대 규모의 주차시설도 새로 들어서며, 쇼핑타운은 인근의 센트럴파크 주차시설 등을 합하면 차량 7천50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롯데의 쇼핑타운 개발은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을 송도로 유치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상반기 착공된다.

롯데의 쇼핑타운 개발은 지난해 5월 인천으로 본사가 이주한 포스코건설과 더불어 대기업 진출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송도 롯데쇼핑타운 개발에 총 5천만 달러의 외자가 들어와, 송도 IBD사업 외자 유치에도 청신호로 작용

한다. 또 송도 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연구소가 설립된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연구소는 연수구 송도동 13-27번지(송도4공구)에 대지면적 2만2천546㎡, 연면적 3만3천㎡ 규모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분야는 그룹 내 가장 글로벌화된 사업이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약 13여 개국에 마케팅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CJ가 송도에서 생물공학분야를 중점 육성하려는 배경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정기술을 강화하고 글로벌 원가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첨단 기능성 바이오산업 소재의 개발을 통한 차세대 유망 영역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안고 있다.

투자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3단계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통해 투자되고, 향후 약 3백명까지 순수 바이오 분야에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가동한다. 올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대한항공도 왕산해수욕장에 요트경기장 마리나를 건설한다. ‘왕산 마리나’는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의 육상과 해상에 걸친 13만3천460㎡에 요트장과 클럽하우스, 정비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에는 요트경기장으로도 활용되고, 향후 3천척 이상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심은 크다. 존슨앤존슨의 메디컬 트레이닝 센터도 유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VTT(Valtion Tekninen Tukimus keskus)는 북유럽 최대 규모의 핀란드 연구소로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MOU를 체결 송도진출을 꾀하고 있다. VTT는 1942년 설립되어 바이오, 화학,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천1백건의 특허 및 특허신청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있는 연구소다.

이제 국내 대기업 및 외국 기업들에게 송도국제도시는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글로벌대학캠퍼스, 지식기반형 산업클러스터, 바이오산업과 연결하여 상상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거듭나고 있다.



- 대상부지 : A1 및 A2-4 블록(부지 : 약 2.6만평, 연면적 : 약 6.7만평)
- 개발주체 : 롯데컨소시엄
- 사업비 : 약 7천500억원(오피스텔 제외, FDI : 약 5천만불)
- 주요 테넌트 : 롯데백화점(8층, 2.3만평), 롯데마트(2층, 1.2만평), 롯데시네마(7층, 0.3만평), 쇼핑몰(2층, 2.7만평), 롯데월드(아이스링크, 860평)
- 사업기간 : 2010년 11월~2015년 3월(오피스텔 : 2016년 1월 준공)



- 대상부지 : 송도동 13-27번지(송도4공구)에 대지면적 2만2천546㎡, 연면적 3만3천㎡
- 투자규모 : 700억원
- 개발주체 : CJ제일제당
- 주요분야 : 바이오사업



- 대상부지 :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육상과 해상에 걸친 13만3천460㎡
- 개발주체 : 대한항공
- 사업비 : 1천500억원(시비 167억)
- 주요시설 : 요트장, 클럽하우스, 정비공간,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12년 상반기~2014년 9월 이전



- 성격 : 1942년 설립된 핀란드 정부 산하 비영리연구소
- 분야 : 바이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 규모 : 2천700명의 연구인력, 핀란드 내 10개 연구소, 1천100건 특허 및 특허신청 보유





인천, 눈과 마음을 빼앗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인천이 있다! 인천이 각종 영상물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드림하이'를 비롯해 영화 '황해', '찌찌한 로맨스'가 인천을 무대로 했고, 현재 드라마 '로열패밀리'와 영화 '도가니'가 한창 촬영 중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인천영상위원회



드라마 '드림하이' 아트플랫폼 촬영현장

아트플랫폼이 스타들로 반짝반짝

인천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다. 때 묻지 않은 섬과 바다, 세상을 향해 열린 공항과 항구를 품고 하늘 높이 솟은 빌딩 숲과 후미진 동네가 사이좋게 공존한다. 우리나라 개화기와 근대화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역사도 묵묵히 배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인천은 영화, 드라마, CF 등 각종 영상물의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다. 우리시도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의 현지촬영을 지원하는 등 영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 쓰고 있다.

택연, 아이유 등 아이돌스타의 출연으로 관심을 모은 KBS 드라마 '드림하이'는 중구에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이 주무대였다. 이곳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00여 년 된 창고와 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아이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꿈을 키우던 예술고등학교가 아트플랫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에서 예고 이사로 출연하는 배우 배용준이 첫 촬영을 하던 날에는 일본 팬 수십 명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로열패밀리



황해



제페한 로맨스



그대를 사랑합니다



인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누비다

지난달부터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로열패밀리’는 인천에서 한창 촬영 중이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인간의 증명〉을 각색한 ‘로열패밀리’는 총수의 자리에 오르는 재벌가의 딸과 그를 사이에 두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드라마는 촬영분의 70%를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포스코건설 본사, 미추홀타워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찍고 있다.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에서도 인천의 인기가 대단하다. 만화가 강풀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인천의 구도심인 용현동, 십정동, 송의동, 가좌동, 학익동 일대에서 촬영했다. 국민배우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이 시대의 성숙한 연인들이 나누는 깊이 있는 사랑을 다루어 호평을 받았다. 인천의 오래된 골목에서 펼쳐지는 노인들의 러브스토리가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이와 함께 개성과 배우 하정우와 김윤석이 출연하는 스릴러 ‘황해’와 배우 이선균과 최강희가 달콤쌉싸래한 로맨스를 펼치는 영화 ‘제페한 로맨스’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최근에는 소설가 공지영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의 촬영장소가 협의되고 있다. ‘도가니’는 청각장애인학교에 부임한 교사가 그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비극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어떻게 풀어갈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에 오면, 당신이 드라마 주인공

인천이 드라마, 영화, CF 등 각종 영상물의 촬영지로 떠오르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드라마 ‘슬픈연가’와 ‘폴하우스’의 세트장이 있는 시도는 이미 유명한 드라마 여행지다. 남녀 주인공이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던 세트장을 둘러보고 주변 해변을 거닐면, 마치 드라마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든다. 시는 이 같은 붐을 이어 촬영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 자연과 최첨단 도시가 어우러진 인천은 영상물 제작자와 시청자가 손꼽는 최고의 로케이션이다. 영상이 주목받는 시대, 인천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세상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다.



시도 ‘폴하우스’ 세트장



미단시트에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 생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방송촬영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트에 생긴다. 미단시트를 개발하는 리포인천개발(LIDC)과 DK홀딩스가 지난 1월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DK홀딩스와 KBS아트비전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류관광스튜디오’라 이름 붙은 이 곳은, 운북동 일대 4천여㎡ 부지에 일반 및 특수 촬영장, 세트 전시장, 관광·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세워진다. 오는 6월에 완공해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류 관광스튜디오는 기존의 참고형 스튜디오와는 달리 독립된 대기실과 스태프 회의실, 대본 연습실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추어 짓는다.

특히 할리우드식 투어시스템을 적용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모아 인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분교 송도에 세운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러시아 간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유치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 기업인 등과 함께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 러시아를 방문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과 두 도시에 각각 상징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와 모스크바대학교 분교를 인천에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러시아에 보관 중인 대한민국 유물에 대한 현황 조사와 대여 전시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우호교류에 합의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심영보 시 대변인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인천광장

우리시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순양함 바리야크호 깃발 임대를 계기로 송영길 시장과 A. 베글로프 러시아연방 대통령부실장 간의 우호교류합의서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우리시와 러시아가 문화·경제교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돌입했다.



먼저 우리시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슈타트 해군사관학교 인근 부지에서 열린 ‘인천광장’ 명명식을 통해 인천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계획을 밝히고 양 도시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명명된 인천광장은 애초 우리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간에 합의된 ‘인천거리’ 조성계획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러시아에서는 외국 도시 이름을 광장에 부여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인천광장 명명식을 계기로 바라야크함 추모비가 조성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을 개조,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해 두 도시가 양국 간 우호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시장은 인천광장 명명식에 이어 바라야크 깃발이 안치된 러시아 ‘해군중앙군사박물관’을 방문해 안드레이 라틴 박물관장과 ‘유물교류전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시는 18~19세기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 독도와 동해 표기에 관련된 러시아 군사 자료의 상호 교류전시 및 유물 반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인천분교, 송도국제도시에 설립



22일(현지시간) 시 대표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잇따라 방문해 바라야크 깃발 대여로 맺어진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구체화했다. 송 시장은 이날 니콜라이 밀라노비치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분교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724년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메드베테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도 이 대학 출신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지난 2009년 인천대와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해 바라야크 깃발 대여를 계기로 메드베테프 러시아 대통령이 인천분교 설립 지원을 약속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인천분교는 송도 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빠른 시간 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협약 체결 후 한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생들을 상대로 ‘동북아 정세와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다.

이어 송 시장은 러시아 내 3인자로 알려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을 만나 오는 9월부터 양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마트비엔코 시장은 송 시장에게 “오는 9월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예술·음악단체를 인천시에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마트비엔코 시장의 제안을 환영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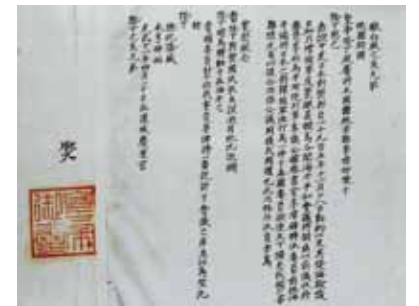
고종 편지 건네받아

23일 모스크바로 이동한 송 시장은 이타르타스 통신의 비탈리 이그나텐코 사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시장은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향후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인천에서 여는 방안과 6자회담 당사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연방의회를 방문, 보르시 바체슬라프 그리즐로프 하원의장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테프 대통령이 합의한 바 있는 PNG(북한을 관통하는 천연가스관 설치) 사업을 위해 러시아가 북한 측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 문화부장관을 예방, 연방박물관 보관문서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국립문서보관소와 기록물 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러시아연방 문서보관소측으로 부터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편지 2점과 1860년대 한국인 관리의 초상 등 총 9점의 자료(영인본)를 건네받았다.

시 대표단은 이후 모스크바대학교와 차이콥스키 컨서트바토리를 방문해 인천분교 설치문제를 논의한 것을 끝으로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미추누리’ 씽씽 잘 달립니다

MICHU
NURI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우리시가 지난 3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도심형 접이식 자전거 ‘미추누리’를 두고 한 말이다. 미추누리는 작은 자전거지만 바퀴가 큰 자전거에 못지않은 힘과 속력을 자랑한다. 더욱이 오르막길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볍게 잘 오르는 장점이 있다. 작게 접을 수 있어 보관 역시 용이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후 접어서 사무실 한쪽에 간편하게 둘 수 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조그만게 잘도 달리네’. 일반자전거에 비해 바퀴도 크기도 작은 초소형 자전거 미추누리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으로 개발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휴대용 가방에 넣고 탈 수 있고, 출퇴근용으로도 가능하다. 시민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휴대용 접이식으로 개발했다. 이름도 인천의 옛 이름인 ‘미추홀’에다 ‘자전거를 타고 누빈다’는 말을 합성해 ‘미추누리’로 지어졌다.

미추누리는 접었을 때 기준으로 가로 80cm, 높이 49cm, 폭28cm 크기로 국내 최소형 자전거다. 앞바퀴 14인치, 뒷바퀴 12인치 크기로 화물운송 기준 총 부피인 158㎢보다 작은 156㎢로 버스, 전철, 비행기에 실어도 화물요금을 내지 않게 제작됐다. 화물운송 규격에 맞았기 때문이다. 총 무게도 11.8kg으로 쇠가 아닌 알루미늄 소재를 택해 최대한 가볍게 했다.

소형 자동차인 아반테 뒷 트렁크에도 4대가 실릴 만큼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레저용으로도 인기다. 유럽 기준 성능시험을 통과해 스포츠용품 전문품질인증인 KISS마크와 국가통합인증 KC를 받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미추누리를 타본 시민들은 자전거가 가볍고 실속있으며 큰 자전거보다 잘 나간다고 만족해했다.

이처럼 초소형의 접이식으로 제작됐지만 가격은 동급의

다른 브랜드 자전거보다 훨씬 저렴하다. 동급의 다른 자전거의 경우 최소 50만원 이상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7단 기어까지 넣을 수 있어 성능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순간 최대 속도가 시속 37km이며, 평균속도 23km를 낼 수 있다.

미추누리는 만 12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1대씩 판매한다. 일반 판매가는 28만 2천원이지만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시에서 10만원 지원되기에 실제 구매가격은 18만 2천만이다. 올해는 1만5천대가 보급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늘려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된 자전거구입신청서에 내용을 적은 뒤 지정판매소에 제출하면 살 수 있다. 구매는 시에서 지정한 37개소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 자전거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미추누리는 혹여 발행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만반의 대비를 했다. 3억원 제조물 책임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시민안전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다. 시는 미추누리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는 대형마트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준다. 자전거를 구입한지 1년 이내에 본체에 하자가 생기면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구매문의 : 1577-4932



인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두 바퀴로 인천 곳곳을 느낀다

자전거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바퀴로 다니면서 자연도 만끽하고, 다리로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건강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듯한 봄벌을 느끼며, 싱그러운 바람을 가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만물이 소생하듯 생기가 솟는다. 몸이 건강해지니 정신은 더욱 맑아진다. 연둣빛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신록을 보며 시원스레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천의 자전거 길을 가보자.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대공원~장수천길

인천대공원~장수천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7km에 이른다. 자전거타기는 공원 내 제1주차장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시작한다. 풍부한 녹지대를 품고 있는 대공원, 생태계가 막 깨어난 듯한 장수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은 살아움직이는 세포처럼 생동감을 준다.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는 꽃동산도 만나고 설치예술품도 천천히 감상하며 지날 수 있다. 공원을 지나 장수천변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녹색천지다. 장수천의 징검다리도 보고 깨끗한 속살도 보인다. 작은 계곡의 느낌을 준다. 자전거를 잠시 놓고 작은 계곡을 감상하노라면 봄 향기를 �담백 맡을 수 있다. 장수천 독길을 따라 쪽 내달리면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간다.



소래 자전거길

만수동에서 논현동으로 이어지는 소래 자전거길 4.4km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어 시민들이 유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여행객들이 애용하는 길이다. 풍광도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빼어나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고, 곳곳에 휴식 시설을 설치해 놓아 운동하면서 쉴 수 있게 배려했다. 자전거도로로 조성된 만큼 거리적 거릴 것 없이 시원스레 내달리면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탄 김에 갯벌과 염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갈 수 있다. 공원은 156만 1천㎡의 갯벌과 폐염전에 총 998억원을 들여 지난 2004년 3단계에 걸쳐 조성했다. 갯벌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으며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 청소년수련관~담방아파트 2.5km 구간은 공사 중임



송기천 자전거길

송기천 6.2km구간은 다시 맑아진 도심의 하천을 만날 수 있는 코스다. 송기천 자전거길을 돌아보면 맑은 물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가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곳은 녹색이라 것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봄에는 양귀비꽃이 피어있고, 꽃들을 심어 놓아 봄꽃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치지 않고 자전거를 기분 좋게 탈 수 있어 더 없이 좋다.

송기천~동막역~송도 해안로(소래포구)를 도는 12~13km 구간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품고 해안가를 달릴 수 있는 코스다.



송도 달빛공원 자전거길

송도 달빛공원~센트럴파크로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도시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푸릇푸릇하고 예쁘게 조성된 공원을 지나 송도국제도시의 첨단 문화공간인 트라이볼, 투모로우시티를 볼 수 있다.

센트럴파크역에서 시작하는 도로에는 자전거길이 잘 설치되어 있다. 이길을 따라 가면 '소리공원', '팝콘시티'도 볼 수 있고, 다시 인천타워 대로로 나오면 미추홀공원, 해맞이공원 등을 자전거로 돌아보고 다시 캠퍼스타운역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코스는 약 20km 이상되고,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문화와 여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천 가지 얼굴

Hong Kong

영웅본색, 화양연화, 아비정전, 침밀밀... 홍콩을 가보기 전에 우리는 그곳을 영화로 보았고 영화로 기억하였다. 하늘 높이 치솟은 홍콩의 빌딩 숲은 허드슨강 너머로 보이는 뉴욕 맨해튼을 닮았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조차돼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까지 150여 년 동안 바위만 가득하던 중국의 어촌은 그렇게 변모했다. 아직도 그 빌딩 숲 사이 골목길을 파고들면 여지없이 '중국 전통'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홍콩은 그렇게 서양과 중국의 두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Asia's World City 홍콩 도시 브랜드는 'Asia's World City'이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도시, 홍콩은 산과 바다와 마천루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존이 홍콩이 갖는 매력이다. 어디를 가나 영어와 중국어가 같이 있다. 간판도 서류 양식도 그렇다. 그것은 홍콩의 역사와 특성을 말해 준다. 거리에는 늘 다양한 외국인을 볼 수 있고 홍콩 앞바다에는 늘 다양한 국기를 매단 배들이 오간다. 거리나 해변에 서 있기만 해도 세계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홍콩에는 다국적 기업들과 은행, 세계적 브랜드가 즐비하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와 사무소가 4천여 개에 달하고, 세계 100대 은행 중 70%가 홍콩에 진출해 있다. 국제 비즈니스나 국제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을 거쳐 간다. 홍콩에는 외국인을 위한 50여 국제학교가 있다.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제학교를 통해 다국적 학생들을 만나고 국제적인 교과과정으로 수업한다.

Hong Kong, Live it! Love it! 활기차고 열정이 넘치는 곳, 홍콩. 그곳은 비즈니스만으로 활기찬 곳이 아니다. 관광과 쇼핑이 그곳을 열정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 26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홍콩은 부산의 4배 정도 크다. 그곳의 매력은 주변 바다와 홍콩 섬 그리고 워터프런트 자체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도심 가까이의 멋진 바다 공원이자 휴식 공간이다.

그래도 홍콩 관광의 으뜸은 야경이다. 특히 구룡반도의 중심가인 침사추이에서 바라보는 홍콩섬 빌딩 숲의 멀티미어 레이저 쇼는 가히 환상적이다. 이 쇼의 무대는 88층짜리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해 빅토리아 항구를 따라 펼쳐진 고층빌딩 18동. 매일 밤 8시부터 18분간 펼쳐지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음악을 곁들여 빌딩 숲 여기저기서 레이저 조명을 쏘 마천루의 멋진 불빛과 밤하늘의 어둠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불거리를 연출한다.

이 쇼의 로열석은 스타의 거리. ‘스타의 거리’는 침사추이의 워터프런트로 고급 호텔이 즐비한 수변공간이다. 1km 이상 이어진 이 바닷가는 연인들의 산책로이기도 하다. ‘스타의 거리’는 그 중 440m를 차지한다. 그 거리는 홍콩 영화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이소룡 등의 동상 그리고 유명 배우의 핸드프린팅 바닥으로 꾸며졌다. 핸드프린팅의 주인공은 성룡, 유덕화, 주윤발 등 70여 명의 배우와 감독이다.

레이저 쇼가 아니더라도 홍콩섬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보는 홍콩의 야경은 백만불짜리다. 빅토리아 피크에서는 홍콩의 스카이라인과 유람선, 정크선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야경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야경만큼 관광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아시아 최고의 ‘마담 투소 밀랍 인형 박물관’이다. 홍콩이나 헐리우드 배우는 물론 배우준 등 우리나라 배우까지 실제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본뜬 밀랍 인형들을 만날 수 있다.



공식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

홍콩의 중국식 지명은 상강(香港)이다. 공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홍콩은 중국 남부 해안 어귀 주장강(珠江) 동쪽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광둥성과 경계를 이루고 남·동·서쪽으로는 남중국해를 접한다. 1842년 중국에 의해 영국에 할양된 홍콩 섬, 1860년에 할양된 주룽반도의 남쪽 부분과 스톤커터 섬(지금은 중국 본토), 그리고 1898~1997년 영국에 99년간 조차권이 주어졌던 신계(新界)로 이루어진다. 신계는 북쪽에 있는 주룽반도에서 선전강 사이의 육지와 230여 개의 크고 작은 근해의 섬들을 포괄한다. 행정중심지인 빅토리아는 홍콩 섬에 있다. 홍콩의 면적은 1천104km², 인구는 703만8천명(2009 추계)이다. 주민은 약 98%가 중국인이며, 나머지 2%는 필리핀·영국·인도·미국 등 국적이다. 광둥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현재는 중국에서 흔히 보통어라고 일컫는 베이징어를 배우는 추세다.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다.



Amazing Hong Kong 홍콩의 원래 이름은 ‘항기가 있는 항구’ 香港(항항)다. 향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란단. 그 때문인지 거리 곳곳에서 향 태우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홍콩 사람의 70%는 도교신자다. 도교 사원은 일본의 신사처럼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홍콩 최대의 도교사원은 왕타이신 사원. 그곳에서는 향을 들고 있거나 산통을 흔들며 점을 치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 있다. 최첨단 홍콩에서 전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본토와 맞닿아 있는 신계지와 구룡반도 및 여러 개의 섬으로 이뤄진 홍콩은 스타페리, 트램, 피크트램, 이층버스, MTR, 공항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도시가 촘촘한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 구룡반도에서 홍콩섬으로 이동할 때 타게 되는 스타페리는 교통수단이란 목적을 넘어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트램과 이층버스는 홍콩의 이국적인 거리 풍경을 연출하는 데 한몫을 한다. 트램은 홍콩섬의 지하철 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빠르지 않게 해안선과 평행으로 운행돼 시내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센트럴지역과 피크타워를 이어주는 피크트램은 홍콩의 가장 오래된 대중교통수단이다. 피크타워로 올라가는 길의 경사각도가 커서 마치 주변의 높은 건물들이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피크타워로 올라가는 시간이 밤이라면 홍콩의 황홀한 야경은 덤으로 볼 수 있다.

‘홍콩’을 표현하는 단어는 비즈니스와 쇼핑. 이제는 여기에 ‘예술’을 추가시켜야 한다. 홍콩섬의 소호 지역은 다국적 음식점에 갤러리와 개성 있는 숍이 합쳐지면서 멋이 넘치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섬의 서쪽에 있는 이곳은 ‘서던 할리우드(Southern Hollywood) 로드’의 글자를 딴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소호와는 다른 생동감을 보여준다. 소호에는 발랄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도 많다.

‘다국적 레스토랑으로 붐비는 거리가 함께 소호로 묶여 지금은 새로운 ‘아트&스타일’의 포스를 풍기고 있다. 홍콩은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



‘낮설고 친근한’ 외눈박이

사진 디렉터 · 멀티아티스트 이영욱 교수

“사진은 텅비어 있는 이미지이고,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매체다.” 상명대 이영욱 교수(45)의 사진에 대한 정의다. 사진은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어 온 사람들에게는 상식을 뒤엎는 논리다.

이영욱 교수는 인천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사진을 정식으로 배웠고, 사진 관련 전시·기획, 강의까지 사진과 관련된 일로만 40년 넘는 인생을 살아왔다. ‘정통파’ 사진가이자 ‘멀티아티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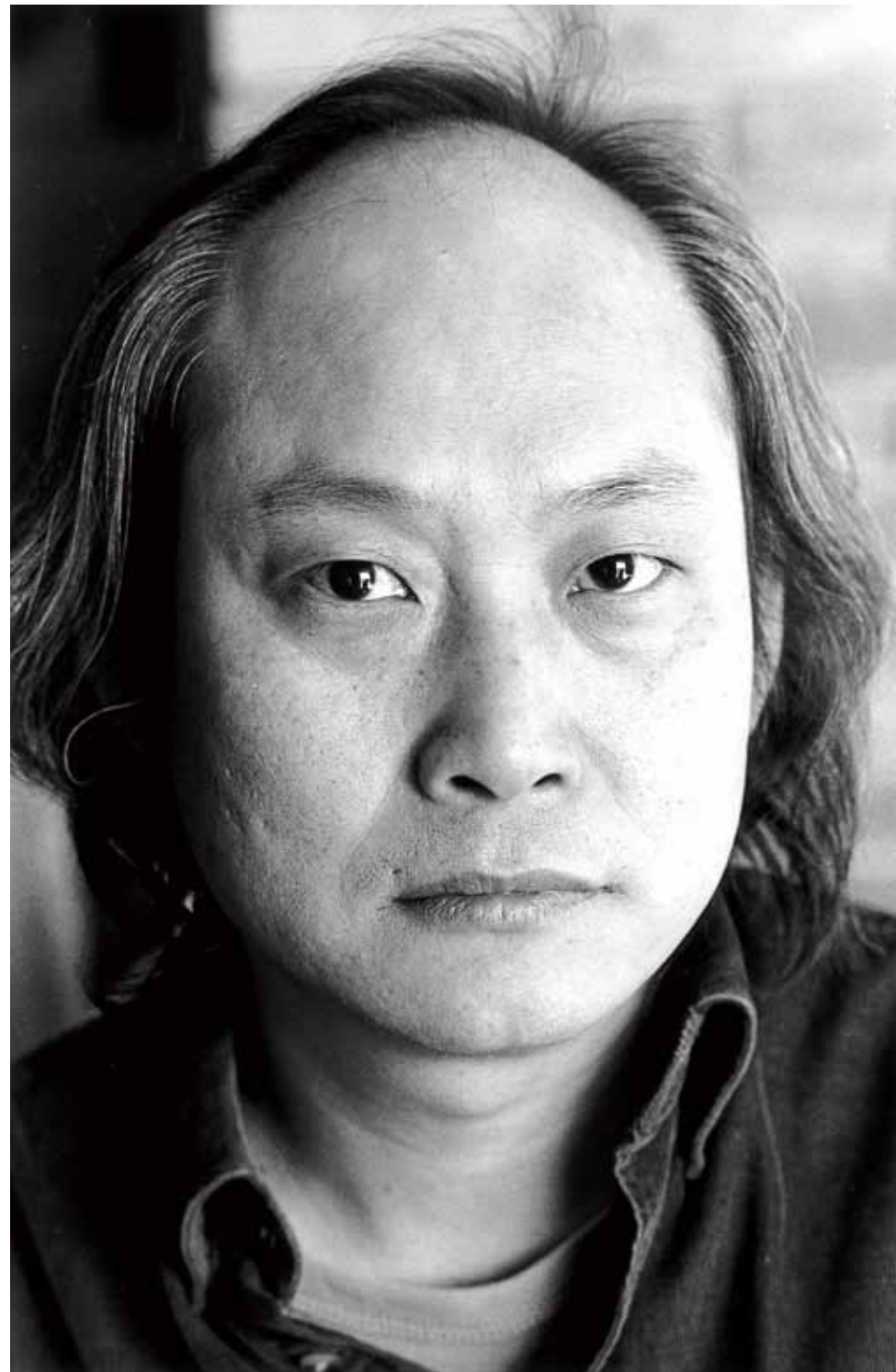
그는 인천 토박이답게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똘똘 뭉쳐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중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 정서도 맞고, 특별한 의미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중구를 주제로 자유공원, 월미도, 북성동 등을 찍고 기록했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관찰하고, 산책하면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마음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이 사진을 모아 94,5년에 전시회를 열었고 황해문화에 ‘사진이 주는 생각’이라는 코너에 2년간 연재했다. 당시 그가 사진작업을 위해 열었던 ‘본다’ 스튜디오는 인천 사진문화 발전의 산실이였다.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기도 했고, 사진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배움터였다. 그는 정통파 사진가지만 사진비평 및 기획에 능력이 있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이기도 하다. 사진전시 및 기획의 불모지였던 인천에 95년과 96년에 ‘짚물전’, ‘외눈박이의 초상’이라는 기획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인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가 지난 10년간 훌쩍 인천을 떠나 있었다. 연변대학 사진학과 초빙교수로 중국동포 학생들에게 사진을 가르쳤다. 다시 돌아 온 그에게 인천은 낮설고도 친근하다. 변화가 있었기에 낮설고, 낮설기에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인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사진으로 담아 내려 한다. 이 교수는 다시 돌아 온 인천에서 지금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양옥집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사진은 고급액자에 예쁘게 걸려 있는 정형화된 사진은 아니다. 방, 화장실, 사무실 등 모두가 사진작업의 대상이다. 텅비어 있는 이미지에 작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말 걸기를 계속한다. 사진은 의인화 되어 소통하며 재미있게 노는 대상이다. 사진이 흰벽에 쪽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 영화처럼, 미술처럼, 책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즐기고 볼 수 있길 원한다. “사진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다른시각, 다른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풍토가 길러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고, 인문학적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이교수의 말없는 사진에 말걸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그는 오늘도 LP판을 건다

인천의 마지막 DJ 한영우

손때 묻어 모서리가 닳은 LP판이 빼곡히 들어찬 부스, 한쪽 벽면에는 당대를 풍미한 뮤지션들의 사진과 음반 포스터가 붙어 있다. DJ가 종이재킷 안의 비닐커버를 열어 까만 판을 꺼내 턴테이블에 건다. 이윽고 LP판이 느리게 돌아가며 음악이 흐른다. 간간히 튀는 잡음도 들린다. CD와 MP3를 타고 흐르는 매끄러운 음악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아날로그 음악은 순수하고 진솔하며 인간적이어서, 귀를 타고 마음에 스며들어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방송인 한영우는 스스로를 '이 시대의 마지막 DJ'라고 말한다. 현재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7,80년대 인천 다운타운을 평정했던 흑백다방과 심지음악감상실에서 DJ로 활동했다. 이들 음악감상실은 당시 인천에 살던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공유했던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그네들은 그 안에서 음악을 듣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낭만이 있어요. 기계가 아닌 목소리에서만 비롯된 음악은 힘이 있었고, DJ는 그 음악에 진솔한 이야기를 더해 감동을 전했지요. 젊은이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는 음악감상실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의 나즈막한 목소리를 따라 시공간을 거슬러 7,80년대 동인천역 부근 작은 음악감상실로 간다. 가수의 목소리에만 기댄 진실어린 음악이 느리게 부유하고, 시(詩)와 같은 노랫말과 따뜻한 선율이 가슴 깊은 곳을 적신다. 부스 탁자 위는 신청곡과 사연을 정성스레 적어 내린 메모지가 붙어있다. 간혹 DJ에게 수줍게 자기마음을 고백하는 소녀도 있었겠지.

시간은 흐르고 그때 그 기억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7,80년대 포크음악 이른바 '세시봉 세대'의 음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흐르고 있다. 삭막한 세상, 사람들은 그 옛날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이 그리워 다시 낡은 음악을 찾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래된 진짜 음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인천의 마지막 DJ 한영우는 오늘도 턴테이블에 LP판을 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리딩이 ‘성공’의 비밀이다

몇 년 전 모 방송에서 진행한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사회적인 독서분위기 조성책 읽기 운동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이제 인천이 앞장 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나이와 계층을 막론한 책읽기 운동을 펼친다. 인천은 책을 통해 ‘문화’를 도시 브랜드로 만들고, ‘도시의 격’을 높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우리시의 책읽기 사업에 발맞춰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도 책읽기 운동이 펼쳐진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한도시 한 책읽기(One city, One book) 사례 및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 ‘메이드 인 인천’ 독서진흥 브랜드를 개발한다.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서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독서클럽을 운영한다. 동호회는 1년에 최소 1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 감명깊게 읽은 책 추천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벌인다. 진흥원 내 IT자료실도 일반 시민은 물론 입주기업 직원에게 개방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아 책도 읽고, 자료도 검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열린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직원들에게도 생일이 나 기념일에 케익대신 책을 선물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분양주택 건설시 도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별도로 소형도서관 건립을 모색한다. 기존의 도서실에는 도서기증을 확대한다.

임직원이 다 읽은 도서는 저소득층 공부방, 임대아파트 등에 기증하고, 지역내 아동센터에 사랑의 도서보내기 운동을 벌여, 지역사랑을 실천한다. 공사 내 영어말하기 대회의 주제를 ‘책’으로 정해 책과 관련된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책읽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또 임직원 독서통신교육, 1주 1책 읽기, 독서토론 등으로 공사직원들이 책을 통해 업무를 향상하고,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용의 계기로 삼는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독서장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카페’를 조성한다. 대합실 내 기둥에 북카페를 마련, 차를 기다리거나 오가는 시민들에게 잠시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메트로는 공사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연계한 독서경영을 시행한다. 최고관리자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서 선정 → 독후감 평가 → 독서문화 확산 → 독서통신교육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한다.

공사는 최고경영자 및 독서심의위원회로부터 도서를 추천받아 책을 읽고 우수 독후감을 제출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서단위 독서토론회도 열고 2012년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한다. 직무나 리더십과 관련된 책이나 콘텐츠를 선정,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수료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독서경영을 통해 독서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양성은 물론 시대를 주도하는 공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의 서평



가짜논리

줄리언 바지니 | 강수정 역 | 한겨레출판 | 2010

〈가짜 논리〉는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논리의 오류를 격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줄리언 바지니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제 사례를 제시한 후 특유의 명석함과 위트로 그릇된 논리를 타파해서 그동안 생각 없이 빠져들었던 오류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준다.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조지 매그너스 | 홍지수 역 | 부키 | 2010

우리는 연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정년 연장 만으로 연금 기금이 충분히 확보될까? 중국의 고령화로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까?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으로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고령화 시대를 내다보는 경제 전망의 타당성을 전망한다.



다시읽는 미국사

손영호 | 교보문고 | 2011

〈다시 읽는 미국사〉는 복잡다단한 미국의 역사를 ‘USA’, ‘아메리칸 드림’, ‘총’, ‘아미스타드’ 총 4개의 키워드로 들여다본다. 미국의 이 중성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통합, 신화, 정복, 차별의 역사라는 대주제로 총 4부에 걸쳐 조망한다. 이 책은 각 주제에 따라 미국사의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고 있다.

주제별 추천도서

서명	지은이	출판사	추천기관	책 소개
지식의 역사	찰스 벤 도렌	갈라파고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류의 진보를 가능케 한 전 세계 모든 지식!
가짜논리	줄리언 바지니	한겨레출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세상의 헛소리를 간파하는 77가지 방법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플라톤	두란미미디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간에 대한 최초의 질문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조지 매그너스	부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고령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세계경제의 판도가 바뀐다!
법을 보는 법	김욱	개마고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
Q&A 과학사	곽영직	살림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착오의 과학사, 그 발자취를 돌아본다
하라하라의 몸이야기	이은희	해나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내 몸 제대로 알고 지키자!
한국의 정원	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대한민국학술원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소박한 공간
우리말산책	이익섭	신구문화사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적인 맞춤법부터 우리나라 방언의 이모저모
삶은 천천히 태어난다	김서령	중앙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시대 명장 11인의 인생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시공주니어	포스코 교육재단	호랑 애벌레가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다시읽는 미국사	손영호	교보문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미국사의 두 얼굴을 읽는다!

자료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 시공주니어 | 2005



세상에 처음 태어난 호랑 애벌레는 ‘삶의 의미’를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수많은 애벌레가 올라가려는 기둥 너머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줄무늬 애벌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간다. 도중에 만난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져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만 기둥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정상에 오를 것을 다짐하고 여행을 떠난다.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 나비가 되면 새로운 삶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나비가 되기로 결심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책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비유로 표현했다.

※‘꽃들에게 희망을’을 놓고 송영길 시장과 시장 트위터 팔로우 대학생들과 독서토론회가 열린다. 이 책을 읽은 대학생 팔로우들과 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4월 1일 오후 7시경 신포동 일대에서 열린다.



글 김래영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커피잔과 커피잔을
보관하는 나무상자.
1910년대

해외에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아쉬운 것을 하나 꼽으라면 식후에 마시는 한국식 커피라 말하고 싶다. 한국식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 즉 커피믹스와 자판기 커피다. 그래서인지 커피믹스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의 여행가방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내용물 중 하나이며, 한국 사람이라면 해외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커피자판기를 찾아 두리번거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입맛에 꼭 맞는 한국만의 커피, 이 정도면 커피를 국민음료의 반열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개항 후 서양의 영사관들이 설치되면서 그들이 커피를 들여왔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커피를 처음 취급했던 호텔은 인천의 대불호텔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첫 발을 딛었던 아펜젤러 목사의 보고서 기록이다. 당시 대불호텔에 머물렀던 아펜젤러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호텔임에도 서양 음식이 입맛에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서양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버터 등이고, 커피는 우리가 승능 마시듯 한다.”라고 적어 놓았듯이 서양의 음식차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커피다. 당시 아펜젤러에게 제공된 음식에는 분명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국인 최초의 커피 애호가 고종임금의 커피 사랑도 유

명한 이야기이며, 1902년에는 손탁 여사가 고종에게서 하사받은 자리에 개업한 손탁호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판매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당시만 해도 커피는 지체 높으신 양반이나 외국인만 즐길 수 있는 특수 기호식품이어서 일반인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어쩌다 맛을 본 사람들은 쓰디쓴 첫 맛에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라 하여 ‘양탕(洋湯)국’이라 불렀다고 한다.

커피가 사회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다방문화가 유입되면서부터다. 1934년에 발표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에는 제비다방, 낙랑파라를 비롯해 당시 경성 시내의 유명한 다방이 망라되어 있다. 소설에서처럼 1930년대를 살았던 예술가와 인텔리들은 다방에 모여 문학과 예술과 시대를 논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부유층에 한정되었지만 가정에도 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신문에서는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게재했고, 무역업을 담당하던 양행들은 저마다 커피를 직수입했다.

해방 후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야전 군용물자인 C 레이션 박스가 일명 양키시장을 통해 다량 보급되는데 그 안에는 통조림, 초콜릿, 껌 등이 들어 있었다. 이때부터 대중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인텔리들의 아지트였던 다방은 전쟁 이후 대중화되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선을 보고 음악을 들으려는 목적에서 다방을 찾았고, 심지어는 사무실 대용으로 다방을 이용하기도 했다. ‘다방커피’라는 말이 있다. 다방에서 파는 커피라는 뜻도 있겠지만 설탕과 프림의 적절한 조합으로 맛을 낸 커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방커피’를 팔던 다방은 다방커피 맛을 자판기 커피와 믹스커피에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변화가 빨랐던 8,90년대 대중들은 다방에서 즐기는 ‘좋은 맛’과 ‘여유’ 대신 거리에서의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택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속도와 편리성을 버리고 다시 ‘좋은 맛’과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곳곳에 대형 커피전문점이 곳곳에 들어서는가 하면 커피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커피공장, 커피박물관까지 생겨났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커피원두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커피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아침의 업무준비, 친구와 수다, 식후 입가심, 손님 접대, 밤샘 공부, 연인과의 대화에 빼놓을 수 없는 국민음료 커피. 지금 한잔 어떠세요?



미군 C레이션 박스, 1950년대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년, 유길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박태원

커피 한잔 LP.
필 시스템wm, 1968년



대불호텔이 보이는 스테레오뷰, 근대



손탁호텔 업서, 근대



맥스웰하우스 가정용 커피 1930년대



커피 배달 도구 1980년대



커피자판기, 1986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Coffee,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전시를 연다. 전시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커피와 관련된 물건, 역사, 영상, 이야기 등을 볼 수 있다. 문의 440-6736

다방, 그곳은 여전히 영업 중 ...

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나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방의 전성기는 대략 1960~70년대로 의견이 모아진다. 일부 계층만 맛볼 수 있었던 커피가 대중화되던 시기이며, 커피믹스와 자판기가 손님을 빼앗기 전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구청 일대가 변화했던 것도 대략 다방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이 곳을 떠나가기 전이다. 전성기가 훌쩍 지나버린 지금 여전히 동네에서 영업 중인 다방 몇 군데를 가보았다.

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과장 사진 조택환 자유사진가



(구)항다방 황국희 사장

삼화다방 내부와 쌍화차

중앙동 삼화다방, 단골 대부분 60세 이상

주로 시청(지금의 중구청) 공무원들을 상대했다는 중앙동 삼화다방. “아침 8시 반이면 곱게 단장한 아가씨들이 시청으로 배달을 나가는 거야. 커피 값은 장부에 달아두고 월말에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우리도 월말이 월급날이었지.” 4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다방을 운영해 온 사장의 말이다. 넓지 않은 실내에 테이블은 많아야 5~6개, 중앙의 연탄난로에는 모락모락 김을 내뿜는 주전자가 올라가 있고 테이블에는 ‘1980년 제3로 찍힌 비마표 사각 성냥이 놓여 있다.

칠순 넘긴 사장님이 옛날 방식으로 손수 끓여주는 계란동동 쌍화차는 늦은 오후 출출한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두 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 6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나름 단골층을 형성하고 있었

다. “웬만한 중소기업이었지. 얼굴마담 둘에 아가씨 여덟, 주방장도 두 명이나 있었어... 하루에 커피만 900잔 넘게 팔았으니까” 호프집으로 바뀌어버린 중앙동 향다방의 사장님은 잘 나갔던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띄운 모닝커피가 나갔다고 한다.

중앙동에 자리 잡은 다방의 단골손님은 대개 공무원과 회사원이었다. 지금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나 차를 대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방을 사무실처럼 이용하는 손님이 많았다. 핸드폰이 없었던 당시로서 귀한 전화기까지 비치하고 있었으니 명함에 다방 전화번호를 새겨 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일대에서 제일 규모가 컸다고 하는 향다방도 커피자판기가 보급되면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2002년 결국 업종을 변경했다.

문인과 화가들의 전시공간, 은성다방

중앙동 다방의 단골손님이 공무원과 회사원들이었다면, 신포동 일대의 다방들은 예술인들의 아지트였다. 변변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시절 문인과 화가들에게 전시와 발표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곳이 신포동의 은성다방이다. 이곳에서 의기투합한 화가들이 즉석에서 동인회를 꾸리기도 하고, 시낭송회나 시화전을 개최했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다. 당시 인천의 예술인들에게 있어 은성다방 못지않았던 곳이 국제다방이다. “화가, 서예가들이 자주 모여 전시회를 열었는데 나중에는 사진작가들도 많이 와서 사진전을 자주 열었어요. 신포동 로터리에 있어 위치가 좋았거든. 그때만 해도 이 건물이 인천에서 제일 비싼 건물 중 하나였어요.” 70년대 말 도화동 집값의 두 배를 주고 다방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장의 설명이다. 손님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사장님은 열탕기로 데운 찻잔에 커피를 내어주신다. “요즘에 이런 거 어디 가서 구하는지 몰라. 찻잔을 소독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커피 맛이 좋아지거든요. 찻잔을 미리 데워놓으면...” 그래서인지 같은 인스턴트커피임에도 집에서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조금 다른 맛이다.

국제다방에서 신포동 사무소 쪽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란커피숍은 다른 곳에 비해 깔끔한 인테리어로 손님을 맞고 있다. “요즘 세상에 지저분하면 장사 못하죠. 인테리어 공사만 벌써 두 번이나 한걸요?” 이곳에서만 십수 년 째라는 옆집 아줌마같은 사장의 설명이다. 테이블 사이의 벽마다 80년대 중반 손님이 주었다는 멋진 흑백사진들이 걸려있어 분위기를 더해 준다. 동네에 새로운 문을 연, 광고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 커피전문점처럼 손님들로 북적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테이블을 제외하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

수년 전 신포동 기업은행 맞은편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더니 크고 작은 커피점이 그 일대로 모여들었다. 이제 보니 신포동은 최신 유행의 커피전문점과 전성기가 지나버린 다방이 공생하는 공간이다.

커피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의 점포이지만 경쟁 상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칙~칙~ 소리를 내며 기계가 내려주는 최신의 커피보다 열탕기로 데운 찻잔에 손수 끓인 커피를 내어주는 옛날식 커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다.



란 커피숍 입구와 공중전화

은성다방이 있던 건물

국제다방 입구와 내부

친구들과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해요

개학과 함께 인천지역 초등학교 232개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시는 소외받는 아이들 없이 모두 사랑이 담백 담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 같은 지원이 아이와 학부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환한 미소를 전해 주길 기대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하장원 시 대변인실



우리학교 처음 무상급식 하던 날

개학을 맞은 지난달 2일,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초등학교의 점심시간.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즐겁다. 새 학년에 올라 새 친구들과 만난 아이들은 기분이 좋은지 마냥 싱글벙글이다. 아이들은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후 음식을 받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이날 메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미 잠곡밥에 뜨끈한 열갈이 배추 된장국, 맛깔스러운 카레 그리고 멸치볶음이었다. 아이들은 반찬투정 없이 남은 반찬을 밥에 쓱쓱 비벼 먹을 정도로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이날 송영길 시장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록 점심 한 끼이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는 시간이었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실시 목표

우리시와 인천시교육청, 구·군은 지난달 2일부터 인천 지역 초등학교 232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 대상은 동구·서구·옹진군은 초등학교 전체 학생 나머지 구·군은 3~6학년 학생이며,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572억원을 들여 1인 1식 급식비 단가를 2천원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청에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 교육청, 구·군은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37억2천여 만원을 들여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식재료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쌀·한우·계란으로, 쌀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저농약·무농약·유기농 쌀을, 한우고기는 관내에서 사육하는 품질 인증 한우고기 2등급 이상을, 계란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아이들 모두에게, 건강한 음식을

시는 그동안 도서·농어촌지역의 아이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자칫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이 같은 뜻에 동참하는 의견도 많다. 인천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무상급식을 시작하던 날 인천시청 앞마당에서 ‘인천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의 시작은 의무교육의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가고 보편적인 복지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반겼다. 또 “올해 초등학교생부터 시작한 무상급식을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길 마음으로부터 바란다.



외국인 편의 도모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1월 말 현재 6만3천566명의 외국인 살고 있다. 외국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언어. 우리시는 외국인들의 전화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7개국 외국어 동시통역 전화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통역이 지원되는 외국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며 운영되는 부서는 시장 비서실과 안내데스크, 종합민원실, 국제협력관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5개 부서다. 이들 7개 나라 외국인들이 시청에 전화를 하면 안내자는 통역전용 전화기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외국 민원인과 통역원, 공무원이 동시에 3자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외국어 동시통역 전화 서비스가 운영되면 외국인들이 전화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4



홀로사는 노인에 '사랑의 안심폰' 제공

우리시는 장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홀몸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혹시 모를 홀몸 노인의 고독사(孤獨死) 예방을 위해 '사랑의 안심 폰' 사업을 운영한다. 홀몸노인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안심 폰' 사업은 독거노인들을 주1회 방문하고 주2회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던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 돌보미에게 영상폰을 지급하고 홀몸 노인에게는 긴급 Call기능과 이동감지센서가 부착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사랑의 안심 폰'은 노인 돌보미가 전화 했을 때 안심 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홀몸 노인의 모습과 방안의 상황을 살필 수 있고 자동 착신기능과 이동 감지센서를 통하여 부재 여부나 귀가 확인 등이 가능해 홀몸 노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문의 : 시 노인복지과 440-2824



노인학대예방 '실버스마일사업단' 출범

우리시는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을 위해 '실버스마일사업단' 출범식을 지난 3월 14일(월)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실버스마일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의 핵심정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11년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실버스마일사업단이 조직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학대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던 우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60명으로 실버스마일사업단을 조직해 운영하게 된다. 우리시의 실버스마일사업단은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노인인권교육실행단은 인천지역 1천11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실버라이프 플래너는 학대피해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학대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은빛날개 인형극단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노인인식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인형극공연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 시 노인복지과 440-2813



도시개발공사에 송도상업용지 현물 출자

우리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시가 보유한 송도국제도시 상업용지 등 1조원 이상의 현물 자산이 추가로 출자된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우량재산 추가 출자를 비롯한 인천도개공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부채 증가로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인천도개공에 올해 상반기 추정 감자가 3천75억원 상당의 송도국제도시 1공구 일반상업용지 6만7천㎡를 출자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7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출자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등에 보유한 재고자산과 송도국제도시 E4호텔, 하버파크호텔 등의 고정자산을 합쳐 총 3조1천491억원 규모의 토지, 호텔 매각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개공이 추진 중인 27개 사업 가운데 하버파크호텔 운영 등 6개 사업은 포기 또는 매각하고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내용과 시기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인천도시개발공사 260-5000

버스, 전철 등 11개 공공요금 동결

우리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버스, 전철,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11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시는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요금 인상 억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물가 안정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올리지 않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해 말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해 왔으며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 440-4203

스마트폰 이용 쓰레기 신고

우리시는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치 쓰레기를 신고하면 일선 구·군이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생활 주변의 방치 쓰레기, 폐가구 등의 사진과 지도 정보를 담아 스마트폰으로 해당 구·군에 신고하면 이동처리반이 수신된 지도를 이용, 즉시 수거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시내 구·군 환경순찰반은 생활쓰레기와 무단방치물을 스마트폰의 트위터를 이용해 이동처리반에 정보를 제공, 처리하고 있다. 시는 3월 한 달을 봄맞이 청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화단 등 도심 시설물을 일제 정비했다.

문의 : 시 청소과 440-3571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모집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5개 대회 참가국을 응원, 지원하는 서포터즈를 3월부터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대회 참가국 연고자 5천명, 공무원 1천명, 학생 8천200명, 일반인 1만명 등 총 2만4천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과 2013년에 각각 학생 800명, 일반인 1만명씩을 모집하고 2014년 학생 200명, 일반인 4천명을 추가 모집해 총 5만명 규모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서포터즈의 경우 이달부터 고등학생 8천명, 대학생 2천명을 모집한다. 시는 서포터즈 참가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동아리방 개설, 회원국의 날 행사 개최, 홍보대사 위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에 꼭 필요한 서포터즈를 집중 육성해 인천 대회를 40억 아시아인이 함께 하는 감동의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26

송도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ISIH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 국내 기업이 40%의 비율로 지분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이다. ISIH는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조건 및 이행사항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송도국제병원을 운영할 외국병원들과 협상에 나선다. 우리시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 존스홉킨스,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운영 MOU를 체결, 존스홉킨스병원이 ISIH가 접촉하는 첫 번째 운영기관 협상대상자가 된다. 또 미국 하버드의대 연계병원인 메사추세츠종합병원, 클리브랜드 클리닉, 일본 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다른 병원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송도국제병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천시-투자자-운영기관간 3자 협약을 올해 말 체결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92

수도권 매립지 내 AG경기장 건설 순동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5곳이 계획대로 세워질 전망이다. 우리시는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에 짓기로 한 5곳의 경기장 건설에 서울시가 동의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5개 경기장은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조정·카누경기장, 클레이사격장 등이다. 이들 경기장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71.3%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에 건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늘리기를 요구하며 건설에 동의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2016년까지만 쓰레기를 매립·처리하기로 합의돼 있다. 우리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시민의 피해가 크니 합의한 대로 2016년까지만 매립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며 두 도시가 대립하였다. 하지만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매립지 사용기한 문제는 별개로 논하기로 두 도시가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로써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40-8912



2015년까지 미술관 부지 결정

우리는 시립미술관 부지를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해 오는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시립미술관 건립추진고문단 회의를 갖고, 미술관 후보지로 검토 중인 옹현·학익1블록 복합문화단지과 도화동 옛 인천대 부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또 송도국제도시 내 트라이블을 임시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전남, 경남에 시립, 도립미술관이 있고 광역시 가운데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3993

경인고속도로 자동차도로 2014년 8월 개통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직전인 오는 2014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시에 따르면 국·시비 5천47억원을 들여 총 연장 7.4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이 도로는 4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공구는 52%, 3공구 19%, 2공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루원시티를 지나 서인천IC과 연결되는 1공구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 오는 9월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223억원은 1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13년 6월까지 2~4공구 공사를 마치고, 2014년 8월 전체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청라지구와 서울이 연결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효과가 극대화하고, 가정오거리와 서인천IC 일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지역개발과 440-4505

2013년까지 도시생태 현황도 제작

우리는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구에 대한 지도 제작을 지난달 마쳤고, 8억2천만원을 투입해 나머지 9개 구·군의 지도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녹지율, 토양피복 현황, 식생 분포 등이 표시되며 도시관리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도가 제작되면 인천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533



4월부터 구·군청 민원실 연장 운영

우리는 4월 1일부터 요일별로 웅진군을 제외한 시내 9개 구·군청 민원실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요일별 운영 자치단체는 ▲월요일 중구 ▲화요일 남구, 서구, 강화군 ▲수요일 동구, 부평구 ▲목요일 남동구, 계양구 ▲금요일 연수구다. 토요일에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구청 민원실이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해당 민원실에서는 인감증명 발급과 여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가능한 민원 등 모두 41종의 업무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볼 수 있다.

문의 : 시 시민봉사과 440-2586

인천대에 생명공학대학 신설

우리는 삼성 바이오제약 부문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시립 인천대에 생명공학대학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에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생명공학대학을 신설하고, 2015년 생명과학연구소와 생명과학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생명공학대학은 현재 정원 80명인 생명과학부를 기반으로, 관련 학과의 편제 조정을 통해 5개 학과, 정원 150명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세부 개설학과는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바이오에너지 엔지니어링, 나노바이오 엔지니어링이다. 시는 인하대, 가천의과학대, 연세대 생명과학 및 약학과와 연계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바이오 전문인력의 네트워킹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 : 인천대학교 835-9313



송도에 지능형 방법 CCTV 300대 설치

인천경제청은 오는 2014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지능형 방법 CCTV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6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3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새로 설치되는 CCTV는 감시구역 내 물체의 색깔과 크기 등을 인지해 자동 녹화하며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될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경보시스템과 연동해 운영된다.

인천경제청은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을 통해 지능형 방범서비스 외에 교통호를 제어, U-모바일, 스쿨존 안전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072

송현시장 등 21개 시장에 국비지원

우리는 동구 송현시장 등 21개 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관 2011년 경영현대화사업 국비지원 대상시장으로 선정됐다. 대상사업으로는 시장투어,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등 4개 분야에 국비가 지원된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남구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구월도매시장 등 3개시장이 유통과 행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구 중앙시장 등 13곳은 경품행사와 공동쿠폰, 홍보사업 등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어시장과 부평중앙·부평역지하도상가는 전년도 박람회 및 공동마케팅 우수시장으로 선발되어 금년 사업비중 국비 30%를 증액 지원받게 됐다.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동구 동부시장 등 3개시장은 상인대학 운영시장으로 선정되어 역량있는 상인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 440-4223



편견과 인종벽 없앤 ‘화합과 소통의 장’

인천과 아시아 이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인 ‘2011인천아시아 이주민 문화제’가 지난달 20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공식행사는 길놀이로 펼쳐져 ‘다문화 화합의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광파례를 올렸다. 인천다문화어린이합창단 ‘한울타리’가 펼치는 식전공연, 모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교육 부문 우수학교, 교사, 학생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등 재한외국공관장도 대거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안 15개국이 참가하는 문화체험행사 아시안 마을, 14개국 전통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시안 푸드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아시안 사생대회, 아시아 근로자들이 추축이 되어 펼치는 풋살대회와 농구대회, 15개국 이상의 전통문화 공연과 아시안 장기자랑 등 다채롭고 즐거운 볼거리가 제공됐다.

이외에도 아시아 이주민의 생활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 박람회에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 우승팀과 장기자랑, 전통공연 입상자 상품증정과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나누며 폐막했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72

인천수목원 숲 유치원 시범운영



인천수목원은 생애주기별 숲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기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 유치원을 시범 운영한다.

숲 유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유아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4월부터 12월초까지 2주에 한번 씩 총 15차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운영되어 기존 1~2시간 운영되던 체험프로그램과는 차별을 두었다.

접수기간은 3월 21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8개 단체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수목원 홈페이지(arboretum.incheon.go.kr)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 한 후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440-5882





‘사랑나눔 빨간밥차’ 봉사활동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부평역 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인 「사랑나눔 빨간밥차.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배식활동을 했다.

시의회는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이사장·이선구)에 인천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 280kg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비록 작은 사랑 나눔 실천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내 소외지역 등을 찾아 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제6대 인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 축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 축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서해5도에 안보체험장과 해양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간 대화채널 복구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과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수정 촉구 결의안’ 등도 함께 채택했다. 시의회의 청원 채택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개발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추홀외고, 인천전자마스터고 현장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과 14일간 일정으로 미추홀외고, 인천전자마스터고의 기숙사 운영과 인주초 급식현황을 현장방문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교육위원들은 학교의 기숙사 시설을 살펴본 후 완성학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사활을 다해 안정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측으로부터는 전교생 기숙사 수용과 면학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시행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건설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는 서구 주경기장, 수도권매립지내 드림파크경기장 외 4개 경기장을 방문하여 주경기장 진입동선의 확인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서구 주경기장 건설공사를 2011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파크 경기장과 계양, 남동, 선학경기장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종목이 추가 확정된 공수도, 크리켓경기장과 인천대공원내에 설치되는 카누경기장, 경기도사격장 사용불가에 따른 옥련사격장 건설에도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조하여 경기장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현지시찰에는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 의원들도 동행하여 주경기장 건설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멘토 강의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원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이 특강에서 김기신 의원은 인생의 멘토가 되어 청소년들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세계와 실패·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또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퇴소 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인천시의회 견학을 통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천항 항만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 15명은 지난달 15일 인천항만공사를 방문, 업무현황 청취 및 인천항만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일행은 제19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 인천항의 항만 현장을 시찰했고, 오전 10시부터 인천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항만 현장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물류 현장인 아람물류단지의 견학과 함께 화인통상을 차례로 방문했다.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미군의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피해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안병배, 이재병, 허인환, 노현경의원 등 인천시의원 23명은 지난 3월 14일 ‘인천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1950년 9월 13일 새벽 월미도 일대에 쏟아진 네이팜탄에 자역주민 80여 가구, 600여 명 중 100여 명이 숨지고 살아남은 주민들도 고향을 버리고 겨우 빠져나온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표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거주지를 잃은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아군 폭격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전문건설협회 및 일반건설협회와 지난달 16, 17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주요 개정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역공동도급 및 하도급율 제고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률(49%) 및 지역업체 하도급율(60% 이상)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은 저가입찰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됨은 물론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지역제한 입찰대상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을 유보토록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선 시의회의 조사특위구성 및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시 명시토록 했다.

굴업도 관광단지 현지시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일과 4일 양일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의 심사를 위해 굴업도 현지시찰을 가졌다. 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정확한 실태를 파악했고, 굴업도를 비롯한 서해도서를 돌아봤다.



학교 및 급식소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는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22일(화) 남동구 만수동의 남동초등학교와 서구 가좌동의 전처리급식소인 (주)기린푸드시스템과 (주)원푸드라인을 현장방문해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현황 청취 및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 급식소의 시행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학교급식 체험을 하였으며, 전처리급식소를 방문해 식재료 처리절차와 시설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고 향후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기로 하는 한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임위원회 탐방 ④ 산업위원회

대기업 인천유치 적극 돕는다



산업위원회는 올해 의정방향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물포 스마트타운 개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인천항개발,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감독업무를 통해 인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올해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과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 매립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를 방문,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의원들이 전문성이 높아야 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 및 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관련 사례 및 규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부서와 자주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업무담당 직원,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

여 전문성을 높인다. 위원회 차원에서 삼성의 송도 바이오산업 진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이 더 발전하고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 환경산업(E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대학의 송도이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상권에 대해서도 재원 및 법규를 마련, 제물포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위원회는 시민과의 소통차원에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토론회 및 간담회, 유동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간담회, 강화군 조력발전소 예정지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계양산 반디불이 탐사 등 다양한 이슈의 정책사안과 관련된 공청회, 워크숍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도 각종 주요 현안사항이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활성화가 의정목표”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51, 동구제2선거구)은 올해 산업위의 의정목표를 인천경제 활성화로 삼았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의 송도진출을 축하하고, 잘된 일로 박수를 보냈다. 삼성의 진출로 향후 인천의 먹을 거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전 위원장은 인천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고 중소기업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기관에서 품질인증,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기업에 생명력을 넣고 자생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전 위원장은 소통을 중시한다. 전 위원장은 시와 의회를 '통장'과 '도장'의 관계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통장에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는 안되고, 의회는 도장찍는 매뉴얼인 조례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 전 위원장은 올해도 위원들과 연구하고 배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려 한다. 시의 환경과 경제정책을 연구·분석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비전있는 정책적 제안 내놓기 위함이다.

인터뷰 _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클릭! 시의원 _ 강병수 의원(부평구 제3선거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를 꼭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채용해 그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은 도서관, 복지, 문화, 평생교육 등의 전문적 분야에 대해선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강 의원은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고, 지방재정건전화·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 정책을 이끌어내고 있다.

강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한 후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채의 심각성을 알렸고, 한국사회의 상징적 문제인 GM대우의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요즘 청소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강 의원은 14년 전 위암3기 진단을 받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다. 이때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맞으면서 세상에 분노하고 투쟁으로 일관하던 자세에서 세상과 화합하고 겸손을 배웠다.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존중 운동을 시작했다. 강 의원의 포용과 화합의 자세는 시 집행부와 관계설정에서도 시의 잘못된을 지적하기 보다는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소통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강 의원은 인천바다에 대한 애정이 무한하다. 어린시절 바다 곁에서 뛰어놀았던 추억이 많아서다. 그러나 정작 바다의 도시에서 바다를 볼 수 없게 된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그러기에 강 의원은 인천의 갯벌을 보전하고 아이들이 바다의 내음을 맡고 클수 있게 강화 갯벌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도에서 실현될 글로벌 교육의 꿈

글 리처드 워밍튼(채드워 인터내셔널 총괄교장)



18년 만에 찾은 한국은 매우 많은 부분이 변해 있었다. 당시에는 갯벌이었던 곳이 국제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활발히 개발되고 있을 만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휴렛팩커드 코리아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나도 기업가에서 교육자로 변했다.

채드워 인터내셔널의 교장직을 제안 받은 것은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채드워 스쿨의 졸업생으로서 채드워 인터내셔널의 수장이 되어 다시 채드워의 일원이 된 ‘인연’ 그리고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한국을 다시 찾게 된 ‘인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송도로 와 채드워의 교육시설을 먼저 찾았다. 창문, 바닥재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학생을 배려해 설계한 흔적이 엿보이는 채드워의 캠퍼스는 나의 의지를 더욱 자극했다. 채드워의 철학이자 나의 교육관이기도 한 창의적 교육, 그리고 은퇴 후 교육계에서 몸담으며 가졌던 글로벌 교육의 꿈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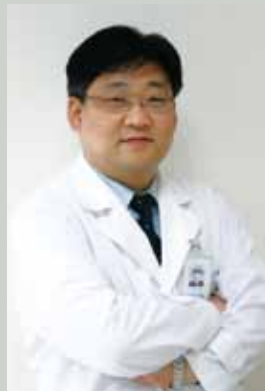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한 캠퍼스를 상상하며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 9월 개교 이후 실현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채드워의 개교 이후 송도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송도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신선한 자극을 가져다 준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일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나의 활동 영역은 캠퍼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인천 내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다채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인천영어마을에서 열린 영어축제에 참가해 바비큐 샌드위치 만들기과 비바 멕시코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차이나타운, 민속촌 등으로 다양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게도 매우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다.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며 설레어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에 작게나마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운이라 여기며 늘 감사해 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 자신감과 리더십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 믿는다. 채드워이 그 선두에 서서 한국 교육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글로벌 교육이 바로 이곳, 송도에서 시작되어 인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기대한다.

방사선, 그것이 궁금하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도호쿠(東北)지방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과 1천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아직 방사능 피해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지 않다. 그러나 그 피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글 이태경 인천의료원 산업의학과 과장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것은 세슘과 요오드라는 방사성 물질이다. 이 물질은 핵분열을 잘하는 성질(방사능)이 있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같은 전리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성 물질이 황사 먼지에 비유된다면 방사선은 먼지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이 숨 쉴 때 폐로 들어 가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몸 안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면 세포가 손상을 입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방사선

방사선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뿐 아니라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할 때에도 방사선을 이용한다. 토양에도 존재하고 우주로부터도 날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2밀리시볼트(mSv)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즉 한 시간에 0.23마이크로시볼트(μSv) 이하 수준에서는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 환경방사능 수준은 시간당 0.066~0.185마이크로시볼트라고 발표되었다.

방사선과 건강

일상적인 노출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핵폭탄이나 방사선 사고가 발생해 1천~5천밀리시볼트 이상 노출되면 급성기에는 전신 무력감, 구토, 심하게는 탈모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고농도로 오랫동안 노출되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방사선의 종류와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적으로는 백혈병,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고 생식능력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저농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도 물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사능 위험 대처법

방사선은 사람이 감지할 수 없으므로 관계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상생활은 유지하되 경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된다.

- 실내가 실외보다 더 안전하다.
- 실내에서는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잘 닫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외출은 삼가며, 외출 후 돌아오면 입었던 옷을 폐기 또는 세탁하고, 비눗물로 샤워를 한다.
-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지 말아야 한다.
- 장독대나 음식물은 뚜껑을 잘 덮어 두어야 한다.
- 구토, 설사가 있거나 호흡곤란을 겪거나 의식을 잃으면 즉시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의복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긴 팔 옷이 좋다.

제37기 햇살가득 씨니데이 볼 특강

- 연수문화원에서는 제37기 봄강좌를 연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접수기간 : 3월 16일 10:00~(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연수문화원홈페이지 yeonsu.or.kr → 강좌신청, 연수문화포털사이트 call.yeonsu.go.kr → 연수문화원강좌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2:00
 - 문 의 : 821-6229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설문조사

- 우리는 2011년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관련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 대 상 : 수해지역 주민 • 조사기간 : 상반기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수돗물 불소화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의 불소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좋은 물 만들기 사업이다.
- 문의 : 440-2742~7

푸른인천글쓰기 대회 열려

-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제9회 푸른인천글쓰기 대회가 열린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기간 : 4월 23(토) 13:00~17:00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광장 일대
 - 주최 : 경인일보, 가천문화재단 / 주관 : 가천문화재단
 - 시상식 : 6월 9일(목) 14:00~
 - 시상식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문의 : 861-3200~5

바비킴 콘서트에 다문화가정 초청

- (재)인천국제교류센터는 인천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소울의 대부 바비 킴의 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시대에 음악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공연명 : Soul Together
 - 일시 : 4월 16일(토) 오후 3시,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대상 :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인천의 50여 다문화가정
 - 문의 : 451-1711

주간 행사 및 시민건강강좌

- 미추홀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행사 및 시민건강 강좌를 연다.
- **빛그림자극**
 - 일시 : 4월 17일(일) 14:00~15:30
 - 장소 : 강당(지하 1층)
 - 대상 : 전체
 - 작품 : 〈기린과 돼지〉, 〈치카치카 호랑이〉
 - 공연 : 극단 '목동'
 - **이야기꾼의 책공연**
 - 일시 : 4월 23일(토) 14:00~15:30
 - 장소 : 강당(지하 1층)
 - 대상 : 5세~전체
 - 작품 : 〈종이붕자공주〉
 - 공연 : 이야기꾼의 책공연팀
 - 문의 : 440-6662, 6664

부평기적의도서관 장서점검 임시휴관

- 부평기적의도서관은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장서점검에 따라 임시 휴관한다. 도서 수급을 위해 4월 1일부터는 도서 대출이 불가하며, 반납만 가능하다.
- 휴관일시 : 4월 12일(화) ~ 24일(일), 2주간
 - 대출정지 : 4월 1일(금)부터
 - 문의 : 505-0612

청소년 특파원 'What's up?' 기자단 모집

- 동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 전문기자를 꿈꾸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 일시 : 4월~11월, 1달 1회 모임
 - 내용 : 청소년 소식지 What's up? 연 3회 제작, 지역사회, 학교, 수련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소식 취재 및 기사문 작성
 - 특전 : 봉사시간 인정, 전문기자와의 만남, 능력향상
 - 대상 : 인천지역 청소년 15명
 - 문의 : 777-7942(내선201)



채널안내 670-5500 뉴스제보 670-5555

OBS경인 TV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아날로그 CH4, CH 21 / 디지털(HD) CH8



〈나는 전설이다〉- 매주 수요일 밤11시
(첫방송 : 4월6일) MC 최양락,이봉원
코미디 제왕 '최양락, 이봉원'이 다시 뭉쳤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추억의 스타!
우리는 그들을 '전설'이라 부른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670-5000 www.obs.co.kr

4월 청소년 문화행사

- 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4월 청소년 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문의 : 577-7979, 579-7977

행사명	접수처 및 기간	내 용
제9회 청소년 창작 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4월 1일~5월 6일 대 상 : 인천 거주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접 수 처 : 서구청청소년수련관 접수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선착순 접수) 제출서류 : CD, 참가신청서	대회일시 : 5월 14일(토) 10:00~18:00 참가분야 : 팝핀, 재즈, 힙합, 치어, 방송, 댄스 등 모든 작품 가능 대회내용 : 예선, 본선, 축하공연, 시상식 등 참가비 : 무료 ※ 수상자에 한해 상장 및 장학금 지급

‘인천항구연구제’ 공연

- 인천연구협회는 인천항구연구제를 열고, 공연을 하고 있다.
- 무예 - 4월 2(토), 3(일)
 - 피어나 〈망자야 놀자-다시라기〉 - 4월 6일(수), 7일(목)
 - 산만 〈나의조국 미운 대한민국〉 - 4월 9일(토), 10일(일)
 - 공연시간 : 평일 19시 30분, 토요일 4, 7시, 일요일 4시
 - 문의 : 862-9683

해명 단청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특별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정성길이 운영하는 해명 단청박물관은 개관 2주년을 맞아 강화 전통사 대웅보전(보물178호), 정수사 대웅보전(보물161호) 단청 비교전을 열고 있다.
- 전시기간 : 3월 25일~6월 28일, 오전 10~오후 5시
 - 장소 : 해명 단청박물관 1층 전시실
 - 관람료 : 7세 이하, 60세 이상은 무료
8세 ~20세 : 1천5백원 / 21~59세 : 3천원
 - 문의 : 868-5898

‘2011작음음악여행’ 개최

- 미추홀문화회관은 생활 문화보급을 확대하고 새롭게 개관한 문학시어터를 다채롭게 활용함과 동시에,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2011작음음악여행! House Concert>를 개최한다.
- 일시 : 4월 8일(금), 오후 7:00~8:00
 - 공연 : 작지만 큰 울림 - 남성중창
 - 장소 : 문학시어터(문학아구장 1루쪽 지하 1층)
 - 입장료 :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가능, 전화 및 방문 선접수 필)
 - 공연문의 : 765-0220, 0250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공연 보러오세요

- 인천시립박물관은 새 봄을 맞아 다양한 문화공연을 연다.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퍼플캣과 함께하는 〈보라색 고양이 꿈〉
 - 일 시 : 4월 10일(일), 오후 4시~ 5시
 - 예 약 : 4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 알프로 떠나는 신나는 요들여행
 - 일 시 : 4월 24일 (일), 오후 4시~ 5시
 - 공연단체 : 요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 예 약 : 4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 장 소 : 박물관 1층 석남홀 (전회 무료 공연)
 - 문 의 : 440-6735

Help Call 1388 청소년전화

-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친구관계나 학업 등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을 돕고 있다.
- 상담시간 : 24시간 / 365일 ○ 상담료 : 무료
 - 상담내용 : 학교부적응, 따돌림, 비행(가출,도박), 진로, 교우관계 등 청소년 관련 상담
 - 신청방법 : 1388, 직통 429-0394
 - 홈페이지(www.inyouth.or.kr) 가입 후 상담신청 접수 가능

자원봉사 클린-업 참여자 모집

- 서구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손쉽게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클린-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
- 신청 및 활동기간 : 연중
 - 활동내용 : 서구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 신청방법 : 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방문, 팩스, 이메일)
 - 문 의 : 568-1365 / 팩스 564-1365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 서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구지역 주민의 밝은 정신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센터'를 운영, 관심있는 시민들을 상담하고 있다.
- 일 정 : 3월~11월까지(총 9개월)
 - 대 상 : 서구지역 전체주민
 - 내 용 : 심리검사 및 상담제공(스트레스, 우울, 자살, 알코올 문제 등 /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참가자 모집예정)
 - 문 의 : 560-5006, 5039 / ismhc.or.kr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햇볕 좋은 봄날,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공원광장으로 나오세요.

틀린 곳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틀린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



3월호 '틀린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천하여 알립니다.



주규배 경기도 고양시	박경인 서울 동대문구
한혜숙 남구 송의4동	황순득 부평구 부평2동
양길승 연수구 선학동	김은영 부평구 청천2동
박성미 연수구 송도동	김근형 남동구 만수동
김영만 경기도 안산시	정성은 연수구 동춘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틀린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틀린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여덟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창범 남구 주안5동	강재원 남구 학익2동	박정순 중구 운서동	고승봉 전라북도 김제시
민경자 부평구 산곡동	김창수 남구 주안5동	유기정 남구 송의4동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김치 찰작



사진 속 사 형제

아주 오래 전 사진입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담임교사와 학생인줄 아는데, 우리 사 형제입니다. 큰형이 대학에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기념으로 찍었지요. 낡은 사진 속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_ 임세자 연수구 연수동



장원



공중부양

차량이 무게를 못 이기고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봄철에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많을 텐데 우리 모두 '안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_ 신고은 동구 송현동



우리는 읽기박사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이 책임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읽기. 넷 중에 누가 가장 잘 읽었을까요?

_ 정현산 서주시 강서구



열차버스

광고용 버스인지 아니면 실제 운행하는 버스인지... 기나긴 버스 한 대가 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커브 돌때 신경 좀 써야겠네요.

_ 김선호 남동구 도림동

사탕이 좋아

놀이공원에서 자기열굴만한 사탕을 먹고 있는 아들. 사탕이 제일 좋대요. 난 네가 제일 좋아. 호호.

_ 장현석 계양구 계산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 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인천의 낭만과 자유를 사랑한다



글 송옥숙
탤런트 · 인천영화인협회 회장

인천에 자리를 잡고 산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남편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살림꾸리고 바빠 살다보니 마치 인천이 원래 내 고향인 것처럼 익숙해졌다. 그리고 인천이 내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이자 내가 보호하고 사수해야하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작 인천이 고향인 남편보다 내 자신이 인천 일에 더 관여하게 됐다. 인천영화인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된 인천사랑은 내가 사회인으로서 지역인사로서 나름 할 일이 많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대도시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상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열등감이랄까... ‘인천’이라는 도시만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라는 명제 아래 이름도 낯선 명품도시로 달려가는 숨가쁨이 불편할 때가 있다.

강의하는 대학에서 연기와 관련된 화술수업을 하면서 호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학생들에게 고무풍선을 불게 한다. 풍선을 욕심껏 마냥 불기만하면 결국 터져버린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호흡량을 화술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가’에 대한 구강구조의 유연성이다. 나는 내가 사는 인천이 그런 유연성을 가진 역사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살아보니 인천은 심적으로 거리감이 있을 뿐이지 서울을 기점으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오히려 경인 고속도로로 접어들면 서울을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고 공기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낀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팽창할 만큼 팽창해버렸다. 이젠 서울이란 도시에서 낭만과 여유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고즈넉한 고궁의 건너편에도 청계천 개울 옆에도 고개를 들어 기지개 한번 켜보려면 영락없이 우뚝 솟은 고층건물들이 도시의 천하대장군인양 내려다보고 있어, 나를 도시의 장식품처럼 초라하게 만든다.

한국어사전에 ‘발전’이란, ‘(사물이)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더 좋은 상태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외적인 개발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 아쉽다. 이 멋진 역사적 유산을 탁탁 털어내고 짹짹 세련된 아파트들 건물들을 지어놔야지만 인천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난 옛것과 새것이 사이 좋게 공존하는 인천에 살고 싶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 있는 것처럼, ‘인천이 땅, 하늘, 바다를 품은 도시로서 넉넉한 멋을 아는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나를 주인공으로 품어주는 여유로운 내 고향이 되기를’ 꿈꾸면서..., 나는 오늘도 자유공원을 따라 애관극장 길을 돌고 차이나타운을 둘러 산책길을 마무리 한다.



동상은 말한다, 인천의 역사를

위인은 죽어서 동상(銅像)을 남긴다. 개항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선 도시답게 인천은 근·현대와 관련된 동상이 대부분이다. 동상은 그 인물과 관련된 장소에 세워져야만 그 의미가 빛난다. 엉뚱한 곳에 서면 ‘우상(愚像)’이 된다.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처럼 찬반이 갈라지면 ‘동상이몽(銅像異夢)’이 된다. 인하대 캠퍼스에는 동상은 사라지고 받침대만 남은 것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으로, 오랫동안 ‘흉상(凶像)’으로 남아 있다. 동상을 보면 인천의 과거를 읽을 수 있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① 백범 김구(인천대공원) ② 길영희(제물포고) ③ 맥아더(자유공원) ④ 이승만(인하대)
⑤ 강재구(창영초교) ⑥ 고유섭(인천시립박물관) ⑦ 윤영하(송도고, 연평해전)

